

103. 시멘트 포장작업과 상차작업을 하던 근로자에서 발생한 소뇌위축증

성별 남 나이 46세 직종 용역서비스업 업무관련성 낮음

- 개요:** 민OO은 1982년 8월 12일 A시멘트에 입사하여 상차부에서 시멘트 포장작업과 상차작업을 하였다.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중 2002년 2월 15일 소뇌위축증이 발견되었다.
- 작업환경:** 민OO은 1982년 입사후 지대(bag)포장작업을 하였다. 포장작업에서는 포크리프트로 옮겨진 37.5 kg 짜리 지대포장지 묶음(150매)을 풀어 15매씩 기계에 올려놓으면 회전형 자동포장기에서 하나씩 시멘트를 포장하여 40 kg 포대로 출하하는 작업을 하였다. 작업환경측정은 시멘트분진 노출 근로자의 평균적인 작업상황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작업량 및 작업강도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측정결과는 1.65~3.69 mg/m³로 노출기준 미만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인 작업자의 노출량은 개인용 보호구 착용에 따라 측정결과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는 1999년에 자동화로 바뀐 상태에 대한 평가이므로 이전에 수동작업을 할 때의 노출정도는 현재와는 달리 훨씬 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의학적 소견:** 민OO은 2000년 6월 3일 작업 중 요추부염좌 및 경추부염좌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경추부의 추간판제거술과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민OO은 2002년 2월 15일 H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소뇌위축증을 진단 받았다. MRI 검사에서 대뇌는 정상이고 소뇌와 뇌교만 위축된 것으로 보아 올리브뇌교소뇌위축증을 의심하여 유전자 검사(SCA2, SCA6)를 의뢰하였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와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올리브뇌교소뇌위축증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 고찰:** 올리브뇌교소뇌위축증은 뇌 특히 소뇌부위의 위축으로 인해 보행장애, 운동실조 등이 나타나는 매우 드문 질병으로, 원인에 따라 유전형과 산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전형은 전체의 10 % 이내에, 주로 40대 이전에 나타나며 가족력을 보이고 상염색체 우성 소견을 보인다. 산발형은 특별한 요인없이 발생하며 주로 50-60대에 많이 발생하고 선행적인 요인없이 발병한다. 민OO의 발병 당시의 추정 연령은 44세로 가족 중에 아무도 동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과 혈액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유전형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으며, 산발형의 경우 어떠한 특정한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 결론:** 민OO은 소뇌위축증(올리브뇌교소뇌위축증)으로 확진되었는데
 - ① 이는 선천성 올리브뇌교소뇌위축증의 가능성은 낮고,
 - ② 시멘트 포장 및 상차작업 중 시멘트 분진에 노출되었고,
 - ③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 ④ 작업 중 두부에 타박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인정되지만,
 - ⑤ 이러한 작업환경이 올리브뇌교소뇌위축증 발병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